

“접수 1분 만에 134명 몰려, 모집인원 3배 늘렸는데도 1시간 만에 마감” 대구 북구 대입 수시 1:1 컨설팅 ‘뜨거운 관심’

김동규 기자 rianwor@hanmail.net

등록 2026.07.28 11:30:43



▲ 대구 북구 대입 수시 1:1 컨설팅 ‘뜨거운 관심’ (2025년 행사사진)

[신경북일보] 대구 북구청은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 1:1 컨설팅' 신청 접수가 시작 1시간 만에 전석 마감되며 올해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접수 시작 1분 만에 모집인원(210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134명이 몰렸으며, 이후에도 접수 문의와 신청이 이어져 1시간 만에 모든 일정의 접수가 마감됐다.

북구청은 급변하는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지난해 70명이었던 컨설팅 인원을 올해 210명으로 3배 대폭 확대했다. 모집인원을 크게 늘렸음에도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맞춤형 진학 상담에 대한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구 지역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들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진학지도협의회' 소속 전문 컨설턴트 17명이 참여해 학생별 맞춤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컨설턴트와 1:1로 매칭되어 1인당 1시간 동안 밀착 상담을 받는다. 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학·학과별 수시전형 유·불리 진단 ▲교과·비교과 영역의 강·약점 분석 ▲진로·적성 맞춤형 학과 추천 ▲개인별 수시 지원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상담은 단순한 대학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생별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희망 진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수시 원서 접수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많은 학생이 신청한 것은 정확한 대입 정보와 개인별 진학 전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적의 수시 지원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청 '대입 수시 1대1 컨설팅', 시작 1분 만에 134명 몰려 조기 마감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 2026/07/28 [10:53:06]

▲ 대구북구 대입수시 1대1 컨설팅 뜨거운 관심(2025년 행사사진)
© 대구 북구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 북구청이 마련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1대1 컨설팅' 신청이 시작과 동시에 폭주하며 단 1시간 만에 전 좌석이 마감됐다.

북구청은 올해 컨설팅 모집 인원을 지난해(70명)의 세 배인 210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접수 시작 1분 만에 134명이 신청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맞춤형 입시 상담에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번 컨설팅은 대입 전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진학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에는 대구광역시 진학지도협의회 소속 진학 담당 교사 17명이 투입된다. 학생 1명당 1시간씩 배정해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까지 꼼꼼히 분석한 뒤, 대학별 지원 가능성부터 수시 지원 전략, 대학 및 학과 선택 방향까지 조언한다.

최근 대입 전형이 복잡해지면서, 학생부 중심의 개인별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진학 상담에 대한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북구는 모집 인원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한 시간 만에 모든 자리가 마감됐다. 앞으로 북구는 추가 운영과 수요 확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한 것은 정확한 대입 정보와 개인별 진학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적의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Applications for the '2027 Academic Year Early Admission 1-on-1 Consulting' organized by the Daegu Buk-gu District Office surged as soon as they opened, filling all seats within just one hour.

Although the Buk-gu District Offi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cruitment quota for this year's consulting to 210—three times the 70 from last year—the enthusiasm remained high, with 134 people applying within just one minute of registration opening. This serves as a reaffirmation of the high level of interest students and parents have in personalized college admissions counseling.

This consulting program was organized to provide students with personalized college admission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landscape of college admission procedures. An official from the Buk-gu District Office announced that the sessions will be held for five days, from the 4th to the 8th of next month, in the main conference room of the district office.

Seventeen teachers in charge of college admissions guidance from the Daegu Metropolitan City College Guidance Council will be deployed for the sessions. They will allocate one hour per student to thoroughly analyze their student records, academic performance,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llowing this, they will provide advice ranging from university application possibilities and early admission strategies to the direction of university and major selection. As college admissions procedures have recently become more complex, personalized strategies centered on student record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Consequently, the demand from local students and parents for free college counseling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steadily rising. In fact, despit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number of available spots, all slots were filled within just one hour of opening. The Buk-gu Office plans to review measures to expand operations and increase demand in the future.

Buk-gu Mayor Lee Geun-soo stated, "The fact that many students applied immediately upon the start of registration demonstrates the high level of interest in accurate college admissions information and personalized strategies," adding, "We will provide active support to help students properly identify their strengths and formulate optimal strategies for early admission applications."

원본 기사 보기: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http://www.breaknews.com/1224878)

대구 북구, 대입 수시 1대1 컨설팅 '후끈'...1시간 만에 마감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입력 | 수정 2026.07.28 15:17

접수 1분 만에 134명 몰리며 높은 관심

모집인원 세 배 늘려도 신청자 몰려 조기 마감



지난해 진행된 대입 수시 1대1 컨설팅 모습. 사진제공=북구

대구 북구의 대입 수시 1대1 컨설팅이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마감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 1대1 컨설팅' 신청 접수는 시작 1분 만에 모집인원 210명의 절반이 넘는 134명이 몰렸고, 1시간 만에 전 일정이 마감됐다.

북구는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70명이던 컨설팅 인원을 올해 210명으로 세 배 확대했지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

컨설팅은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소속 진학 담당 교사 17명이 참여해 학생별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참여 학생들은 1인당 1시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별 수시전형 분석, 교과·비교과 강·약점 진단, 진로·적성에 맞는 학과 추천, 개인별 지원전략 등을 상담받는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린 최적의 수시 지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